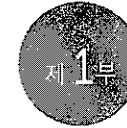


부 록

1. 동아시아연구원(EAI) 시민정치패널 활동소개 / 231
2. 동아시아연구원(EAI)·중앙일보 “한국인의 국가정체성 조사” 개요 / 235
3. 질문지 / 237

▪ 참고문헌	261
▪ 찾아보기	273
▪ 필자약력	276



국가정체성과 한국 민주주의

제 1 장 한국인의 국가정체성과 민족정체성: 대한민국 민족주의
강원택

제 2 장 집단정체성, 사회균열, 그리고 정치균열
김민전

제 3 장 계급정체성과 한국인의 정치행태
정한울

제 4 장 민주적 시민성의 성장과 민족정체성
정한울 · 정원철

제 1 장

한국인의 국가정체성과 민족정체성

대한민국 민족주의

강 원 택

1. 서론

우리사회에서 민족의 개념은 논란의 여지가 없었다. 우리는 혈연, 언어, 역사, 문화적 동질성을 기반으로 한 ‘단일민족’이라는 개념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우리사회 내부환경의 변화로 인해 한국인의 정체성에 대한 ‘전통적’ 인식이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 사람 가운데 외국으로 이민 가서 사는 이들이 많아졌고 역으로 우리나라에서 장기간 거주하는 외국인들도 늘어나고 있다. 또 한편으로는 서양뿐만 아니라 동남아, 중국 등 외국인과의 결혼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인종적으로 언어적으로 문화적으로 강한 동질감을 기초로 했던 ‘단일민족’ 한국인의 정체성이 변화하고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인, 한민족은 도대체 누구인가? 이 장의 목적은 이처럼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국가정체성과 민족정체성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한민족, 한국인을 규정하는데 있어서 혈연, 언어, 문화와 같은 생래적 요인을 강조했던 태도로부터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지 찾아보고자 한다.

이 장에서 주목하는 점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흔히 한민족이라고 통칭되는 혈연에 기초한 한국인의 정의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한국인’들은 어떤 인식을 갖는가 하는 점이다. 그 대상은 북한동포뿐만 아니라 중국의 조선족, 재미동포, 재일동포 등 외국거주동포, 그리고 러시아 거주 고려인까지 포함한다. 이처럼 범(汎) 한국인이라고 불릴 수 있는 혈연공동체에 대해서 정체성과 관련하여 어떤 인식의 특성을 보일 것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오랫동안 떨어져 살아온 이들에 대해서 막연한 혈연적 동질성으로 포용하기 어려운 문화적, 정치적 인식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보다 근대적이고 정치공동체 중심적인 민족의식이 확인되는지 살펴볼 것이다.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에 대해서도 주목할 것이다. 장기간의 분단으로 이질성이 커진 만큼, 북한 문제를 단일민족 개념과 민족통일로 단순화해 온 과거의 시각으로부터의 변화는 없는지 분석해 볼 것이다.

두 번째로는 한국사회 내의 인종적 다양성에 대한 포용의 정도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장기간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뿐만 아니라 국제결혼을 통해 우리나라에 정착한 외국인들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상이한 피부빛과 외모의 한국인’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수용하고 인식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인식의 변화가 발견된다면 이는 우리사회에서 한국인의 정체성을 혈연을 중심으로 한 폐쇄적인 ‘단일민족’ 신화로부터의 완화, 개방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으며, 세계화라는 시대적 추세에 대한 한 반응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처럼 ‘외국계 한국인’에 대한 개방성, 수용성 문제는 우리 정체성의 변화를 측정하는 좋은 지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의 특성은 시대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은 것일 만큼, 성장해 온 환경이 각기 다른 세대간 인식의 차이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세대별 인식의 차이에 대해서도 주목해서 살펴볼 것이다.

2. 민족과 국가정체성

사실 민족의 개념은 매우 논쟁적이며, 이처럼 사회과학에서 ‘포착하고 정의하기 어려운 개념도 드물다’(조흥식, 2005: 129). 민족을 규정하는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혈연이나 문화적 요소만을 강조한다면 스위스나 미국 등 다인종사회는 하나의 민족국가로 간주될 수 없을 것이다.

베네딕트 앤더슨(Benedict Anderson, 1991)은 민족을 ‘상상의 공동체’(imagined communities)라고 불렀다. 앤더슨은 민족은 한정된 경계를 갖는 제한적 존재이고 주권을 가진 공동체로 ‘상상된다’고 주장했다(Anderson, 2002: 26~27). 즉, 민족은 혈연의 순수성에 근거한 실제적 집단이기보다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존재라는 것이다. 홉스봄(Hobsbawm, 2004: 41) 역시 이러한 시각을 취하고 있다.

역사 내적이든 역사 외적이든, ‘프랑스’와 ‘프랑스인’이라는 근대적 개념에 묻혀 있는 연속성이 무엇이든 간에 ... 바로 이 개념들 자체가 구성되거나 ‘발명된’ 요소를 포함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근대 ‘민족’을 주관적으로 구성하는 것 대부분이 그런 구성물들로 이뤄져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최근에 만들어진 적합한 상징이나 혹은 알맞게 재단된 담론(‘민족사’와 같은)과 관련되어 있는 까닭에 민족적 현상의 ‘전통의 발명’에 대한 진지한 관심 없이는 결코 적절하게 조사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시각은 국가가 민족을 만들어 낸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즉, 민족은 공동의 언어, 혈연, 문화공동체라는 객관적 요소에 민족의식이라는 주관적 요소가 더해져 공고해진 실체이며 민족은 상상의 공동체가 아니라 실재(實在)의 공동체라고 하는 주장(《동아일보》2006. 3. 4)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혈연

적 특성이나 언어, 습관 등 문화적 동질성, 역사적 경험의 공유, 그리고 거주영역의 지리적 제한성 등으로 인해 서구에서 생성된 근대적 민족개념과는 다른 형태의 민족의식이 발전되었다. 즉, '만들어진 상상의 공동체'가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혈연공동체의 특성이 강조되어 왔다.

그러나 외부적 상황의 변화로 이처럼 혈연이나 문화적 동질성에 기초한 우리의 기존 민족의 정체성이나 민족개념을 유지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생겨나고 있다. 그 첫 번째 요인은 남북한의 분단이다. 혈연, 문화적으로 동질성을 갖는 집단이 50년 이상 상호분리된 별개의 정치적 단위에 머물고 있고, 그로 인한 정치적 충성의 대상이나 상징도 서로 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의 글은 이와 같은 우리의 애매함을 잘 나타내고 있다.

국민이라는 번역은 분명 민족보다 훨씬 내이션(nation)의 근대적 성격을 강조하는 번역이다. 국민이라는 표현은 민족의 집단주의적 성격을 벗어난 자율적 주체로서 개인들의 집합이라는 의미, 또는 프랑스나 미국식 계약적 내이션의 성격을 훨씬 강하게 보유한다. 내이션 스테이트(nation state)를 민족국가로 번역하느냐 국민국가로 번역하느냐에 따라 그 의미는 판이하게 달라진다는 말이다. 일례로 대한민국은 하나의 완전한 국민국가이지만 통일이 이뤄지기 전에 민족국가라고 보기는 어려워진다(조홍식, 2005: 137).

더욱이 남북한간 혈연, 언어, 문화적 정체성을 토대로 단일민족의 이념을 유지해왔다면, 지난 50년간 남북한 사이에 생겨난 언어, 사상, 문화적 이질감의 증대는 남북한간의 동질성을 전제로 민족정체성을 정의해온 방식에 대한 새로운 도전이 되었다. 이 글에서는 이런 점으로 인해 남한과 북한 사이의 별개의 민족정체성이 생겨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또 다른 요인은 세계화와 우리사회의 개방화로 인해 문화적, 혈연적 동질성에 대한 새로운 변화가 생겨나고 있다. 한국에 장기적으로 거주

하는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증대, 외국인과의 결혼의 증가 등 최근 들어 '외국계 한국인'이 늘어나는 현상으로 인해 우리의 정체성을 어떻게 규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커지고 있다. 또한 '혈연의 순수성'에 위배되는 혼혈인에 대한 사회적 포용력도 이전에 비해 커진 것으로 보인다. 이중국적자에 대한 논란 역시 세계화된 상황에서 한국인의 정체성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는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상상의 공동체든 혈연, 문화와 같은 '객관적 요소'에 기초한 실제공동체든 과거 우리가 규정해온 한민족, 한국인의 정체성과는 상이한 환경이 만들어진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로 보인다. 내외적 변화의 시점에서 한국인이 생각하는 자신들의 정체성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은 그런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 한국인의 정치적 정체성과 민족주의

1) 한국인의 정체성

오늘날 한국인들이 인식하는 자신들의 민족정체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가 스스로를 어떻게 정의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는 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한국인이 중시하는 상징에 대해 알아보았다. <표 1-1>은 '한민족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느냐'는 질문에 대한 응답을 정리한 것이다. 이 질문에 대하여 태극기라는 응답이 26.9%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그 중에서도 20대(35%), 60대 이상(33.5%)에서 이에 대한 응답이 특히 높았다. 여기에 애국가(4.1%), 무궁화(1.1%)를 더하면 모두 전체 응답자의 1/3 정도는 한민족 하면 대한민국의 공식적인 국가상징을 떠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많은

〈표 1-1〉 한민족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비율(%)
태극기	26.9
백의민족	26.4
단일민족	17.3
단군	11.7
한글	10.4
애국가	4.1
무궁화	1.1
기타/모름	2.1
N=1,038	100.0

응답은 백의민족이라는 응답으로 26.4%였다. 세 번째로는 단일민족이라는 응답으로 17.3%였다. 전체적으로 볼 때, 태극기와 같은 공식적 국가상징에 대한 강조가 확인되고, ‘단일민족’이라는 혈연공동체적 인식 역시 중요하게 나타났다.

그런데 〈표 1-1〉의 결과는 사실 한국인을 정의해온 기존의 통상적 인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은 아마도 ‘한민족’이라는 개념을 대한민국 영토 내에 거주하는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인식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전과는 달리 세계화시대가 도래하면서 한국사회 역시 국제화되고 대외적 교류가 활발해진 상황을 고려하면서, 한국인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살펴보는 것이 보다 흥미로운 것이다. ‘외국에 거주하거나 외국에서 태어난 한국인’ 혹은 ‘절반만 한국인의 혈통’을 갖는 이들을 포함한 ‘범(汎) 한국인’, 그리고 나아가 한국인으로 귀화한 외국인 혹은 한국에 장기간 거주하면서 한국인으로 정체성을 갖거나 갖고 싶어하는 외국인을 포함하게 될 때 한국인 혹은 한민족에 대한 정

〈표 1-2〉 진정한 한국인이 되기 위해 중요한 점

(단위: %)

‘진정한 한국인’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평균 ¹⁾
대한민국 국적 유지	88.2	11.1	1.65
한국어의 사용	87.0	12.6	1.70
전통, 관습 준수	82.1	16.9	1.85
대한민국에서 출생	81.9	17.7	1.80
한국인의 혈통	80.9	18.3	1.84
대한민국의 정치제도, 법 준수	77.5	20.6	1.97
생애 대부분을 한국에서 거주	64.6	34.7	2.13

주: 1) 평균은 ‘매우 중요하다’ (1), ‘대체로 중요하다’ (2), ‘별로 중요하지 않다’ (3), ‘전혀 중요하지 않다’ (4)는 각 응답의 평균으로 숫자가 낮을수록 중요도에 대한 인식이 크다.

의나 인식은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다.

전통적으로 인식되어온 한국인의 범주를 넘어서 지리적, 문화적, 그리고 혈통적으로 보다 확대된 한국인의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해 ‘진정한 한국인의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표 1-2〉의 결과는 ‘진정한 한국인이 되기 위해 각 항목의 조건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묻은 응답에 대한 반응이다. 전반적으로 제시된 항목 모두에 대해 긍정적인 응답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지만 항목간 적지 않은 차이도 확인된다.

가장 두드러진 특성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이 가장 강하게 나타났다. ‘진정한 한국인이 되기 위해서’ 중요한 것 가운데 한국국적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88.2%가 한국인으로의 정체성을 위해 국적을 유지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응답에 대한 평균값도 가장 낮게 나타나 국적유지의 중요성에 대한 높은 인식을 확인해준다.

두 번째로는 ‘한국어 사용’이라는 응답으로 87%로 높게 나타났다. 앤더슨은 민족주의의 기원을 설명한 《상상의 공동체》에서 공통의 언어가 근대적 민족형성의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고 지적한 바 있는데, <표 1-2>에서는 흥미롭게도 ‘한국어’라는 공통의 언어가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해주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언어와 함께 전통, 관습 등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높게 나타났다.

흥미로운 점은 ‘대한민국에서 출생해야 한다’, ‘한국인의 혈통을 가져야 한다’거나 ‘평생의 대부분을 대한민국에서 거주해야 한다’는 응답보다 국적유지, 공동의 언어에 대한 중요성이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즉, 혈연공동체에 대한 강조보다, 또 한반도라는 지리적 연고중심의 정체성 인식보다 대한민국이라는 정치공동체의 소속감, 그리고 언어, 전통·관습 등의 문화적 요인에 대한 중요성의 인식이 더욱 높다는 점은 매우 주목할 만한 특성이다. 단순화의 위험이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결과는 혈연, 지연보다 소속감, 의식, 문화요인이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규정하는 데 더욱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해 준다. <표 1-2>의 결과는 이와 같은 의미 있는 특성을 시사해 주지만 항목간 비율의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여기서의 결과만으로 이런 결론을 단정짓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 때문에 추가로 몇 가지 질문에 대한 응답패턴을 살펴보았다. 이번에는 자신들이 가깝게 느끼는 정치적 소속감의 단위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표 1-3>에서 보듯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가깝게 느끼는 정치적 소속감은 ‘대한민국 국민’이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소속감이 중요하다는 인식은 보다 혈연적 의미가 강조되는 ‘한민족’이라는 응답보다 매우 강하게 나타났다. 과거 ‘단일민족’으로서의 혈통의 순수성과 혈연에 기초한 한민족의 일원으로서 한국인을 규정했다면, <표 1-3>의 결과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단위의 정치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정치적 소속감이 보다 강조되고 있음을 알게 해준다. 앞에서 본 ‘국적유지가 중요

<표 1-3> 지역 단위별 정치적 소속감

소속감의 단위	중요하다 ¹⁾ (%)	평균 ²⁾	표준편차
읍/면/동민	54.8	2.44	0.87
시/군/구민	53.2	2.50	0.82
광역시/도민	39.4	2.71	0.84
대한민국 국민	78.7	1.97	0.77
한민족	66.9	2.18	0.83
아시아인	46.6	2.57	0.88
세계인	29.4	2.86	0.84

주 1): ‘매우 중요하다’와 ‘대체로 중요하다’의 응답을 합한 비율.

2): 평균은 ‘매우 중요하다’ (1) ‘대체로 중요하다’ (2) ‘별로 중요하지 않다’ (3) ‘전혀 중요하지 않다’ (4)는 각 응답의 평균으로 숫자가 낮을수록 중요도에 대한 인식이 크다.

하다’고 한 <표 1-2>의 결과와도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 이러한 응답패턴에 연령별 차이는 그리 크지 않았다. ‘대한민국 국민’, ‘한민족’ 다음으로는 소규모 하위 지역단위인 읍/면/동 그리고 시/군/구에 대한 소속감이 강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 단위에 대한 평균값은 대한민국 국민이나 한민족 단위에 비해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2>, <표 1-3>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한국인의 정체성과 관련해 많은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대한민국이라는 정치공동체의 소속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이와 같이 우리의 정치적 정체성과 관련해 볼 때 대한민국 국적이 중요하다는 인식은 ‘누구까지를 한국사람으로 볼 것이냐’에 대한 궁금증을 불러일으킨다. 누구는 한국사람이고 누구는 아니라는 식으로 구분하는 정체성 구분의 기준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 <표 1-4>의 결과는 이에 대한 또 다른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준다.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

〈표 1-4〉 한민족 구성원 (중복응답 허용)

한민족?	북한주민	해외동포 1세	해외동포 2, 3세	해외 입양아	한국국적 포기	한국 국적 취득 외국인
그렇다(%)	79.7	71.1	34.2	57.9	9.1	28.1

한 외국인은 한민족으로 봐야 하냐는 질문에 대해 28.1%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이에 비해 ‘한국인이었지만 국적을 포기한 사람도 한민족으로 봐야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단지 9.1%만이 그렇다고 응답했다. 한국인으로 귀화한 외국출신자들을 ‘우리나라 사람’으로 받아들이는 데 대해 여전히 보수적이고 폐쇄적 시각이 나타나지만 28.1%라는 비율은 국적포기자를 우리나라 사람으로 간주하는 것에 비해서는 월등히 높은 비율의 긍정적 응답이다. 즉,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사람은 한민족, 혹은 우리나라 사람으로 볼 수 없다는 인식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앞에서 확인한 사실과 같이 ‘대한민국인’으로서의 강한 정체성이 여기에서도 확인된다.

이러한 사실은 가수 유승준 씨의 미국국적 취득문제라든지 최근 이중국적 허용여부를 둘러싼 우리사회의 논란의 원인을 보여준다. 그런데 최근 우리사회에서 논란이 되었던 이중국적이나 국적포기의 문제는 사실 병역문제와 긴밀한 관련을 갖는다. 다음의 기사는 우리사회에서 이중국적, 국적포기를 바라보는 시각의 일단을 보여준다.

이중국적자의 병역의무도 논란거리다. 남자인 이중국적자는 병역의 의무가 생기는 18세 이전에만 한국국적을 포기하면 병역을 면제받고, 18세 이후라도 가족과 본인이 모두 영주권자이면 병역을 면할 수 있다. 2003년 임명된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의 장남이 이렇게 병역을 면제받아 구설수에 오른 바 있다. 또 국내병역법은 18세 이후에는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될 때까지 한국국적을 포기할 수 없도

록 하고 있어 이중국적자가 해외에 머물 경우 병역의무가 사라지는 35세까지는 이중국적 상태를 유지할 수도 있다. 이중국적자는 또 한국에 거주하더라도 전쟁과 같은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미국 등 해당국 국민으로서 신변안전을 우선 보장받고, 외국대학에 진학할 경우 입학은 물론 학자금대출 등록금 장학금 등 모든 면에서 외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게 돼 한국인이면서도 외국인으로서의 많은 지위를 누린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이중국적자가 병역 등 국내의무를 회피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강화하고 특히 고위공직자 임용에 있어서는 가족의 이중국적 문제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한국일보》 2005. 1. 6.).¹⁾

그런 점에서 본다면 ‘한국인이었지만 국적을 포기한 사람’을 한민족으로 볼 것이냐는 시각은 연령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병역의무의 이슈의 직접적 대상이 되는 20대의 경우에 이 문제에 대해 보다 엄격한 입장을 나타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표 1-5〉에서 보는 것처럼 실제로 20대 응답자들 가운데 ‘대한민국 국적포기자’를 한민족으로 인정한다는 응답은 평균보다 낮은 7.1%로 나타났다. 병역의무 요인이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이들 국적포기자에 대해 가장 큰 거부감을 보인 연령집단은 50대 응답자였다. 이들 가운데 3.5%만이 국적포기자를 한민족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응답을 했다. 50대 집단에서 국적포기자에 대한 강한 거부감은 이들 연령집단이 대체로 군대에 가야할 자식을 갖는 연령층이라는 사실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연령과 무관하게 전반적으로 국적포기자에 대한 거부감이 크지만, 20대와 50대 연령층에서 특히 거부감의 강도가 큰 것은 앞서 지적한 대로 이중국적자의 국적포기가 병역의무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강하게 시사해준다.

1)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0501/h2005010918540821950.html>
(검색일 2006. 3. 10).

〈표 1-5〉 한민족 인정에 대한 연령별 인식

(단위: %, 명)

	대한민국 국적 포기자	한국 국적 취득 외국인	N
20대	7.1	36.2	224
30대	11.1	29.3	257
40대	12.0	25.4	239
50대	3.5	25.4	141
60대 이상	9.4	22.1	177
평균	9.1	28.1	1,038

한편, 한국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을 한민족으로 간주할 수 있는냐는 질문에 대한 응답에서도 연령별로 다소 차이를 보인다. 〈표 1-5〉에서 보듯이, 나이가 젊을수록 이 사안에 대해 개방적인 반면, 나이가 들수록 그 비율이 낮아진다. 20대 응답자 가운데 36.2%가 한민족으로 볼 수 있다고 응답한 반면, 60대 이상 유권자들 가운데 그 비율은 22.1%에 불과했다. 젊을수록 혈연적 동질성보다 국적이라는 정치공동체의 소속감을 보다 중시하는 특성이 확인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대로 국적포기자에 대한 강한 거부감, 국적취득 외국인에 대한 포용이라는 특성은 앞서 본 결과와 마찬가지로 혈연, 지연과 같은 전근대적 가치보다 대한민국이라는 정치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근대 민족국가적 정체성의 중요성이 확인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혈연보다 국적이 중요하다면 해외에 거주하는 동포들은 한국인의 정체성이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살펴보는 일이 필요할 것 같다. 〈표 1-6〉은 해외 각 지역에 거주하는 동포들에 대한 친근감의 정도를 정리한 것이다.

해외에 거주하는 동포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친근감이 높은 편이었지만 몇 가지 차이점이 확인된다. 우선 지적할 수 있는 점은 북한동포에

〈표 1-6〉 해외 거주 동포에 대한 친근감의 정도

(단위: %)

	재미동포	재일동포	중국 조선족	러시아 고려인	북한동포
남이다	27.7	27.1	25.3	30.6	21.7
대한민국 국민이다	68.2	68.3	70.1	62.3	73.5

대한 일체감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는 점이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재미동포나 재일동포는 국내방문이 자유롭고 한국 내 친척이나 친구들이 많은 편이어서 상대적으로 교류가 잦았고 또 쉽게 방문할 수도 있었던 이들인 반면, 북한동포는 말할 것도 없고 중국 조선족 역시 최근 까지 이들과의 교류는 거의 완전하게 끊어져 있었다는 점이다. 상호교류의 빈도에 대한 분명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재미동포, 재일동포보다 북한동포나 중국 조선족에 대한 친근감의 정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가 나타난 한 원인은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인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어디까지를 대한민국의 영토로 보느냐에 따라서 해외동포를 바라보는 인식에 차이가 생겨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영토를 ‘남한’만으로 인식하느냐, 북한까지를 포함하는 한반도 전체로 규정하느냐, 아니면 한반도뿐만 아니라 만주지역까지 포함하는 보다 넓은 지역으로 인식하느냐에 따라 이들 동포들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만일 한반도뿐만 아니라 만주까지 대한민국의 영토로 인식한다면 그곳에 거주하는 북한, 조선족 동포들에 대해 보다 강한 동질감을 갖는 것은 논리적으로 일관된 시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 우리 영토를 현 헌법규정대로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보는 이들은 47%, 또한 ‘한반도와 만주까지’로 보는 이들도 25%에 달한다. 그러나 우리 영토를 남한지역만으로 국한하는 사람들도 25.8%에 이른다. 영토에 대한 인식에도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영토인식과 재외동포의 정체성 인식

〈표 1-7〉 영토에 대한 인식과 해외 거주 동포에 대한 친소감

영토에 대한 인식	해외 거주 동포에 대한 친소감 ¹⁾				
	미국동포	일본동포	조선족	러시아 고려인	북한동포
남한지역	2.93	2.90	2.90	2.70	2.90
한반도	2.99	3.03	3.00	2.89	3.13
한반도+만주	2.94	3.04	3.10	3.03	3.21
평 균	2.96	3.00	3.00	2.88	3.09
ANOVA	F=0.55 p=0.58	F=2.15 p=0.12	F=4.03 p<0.05	F=9.65 p<0.01	F=9.95 p<0.01

주 1): * 1-(완전히 남이다) ; 2-(남이다) ; 3-(대한민국 국민에 가깝다) ;
4-(대한민국 국민이다)의 응답의 평균값임.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표 1-7〉은 매우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준다. 대한민국의 영토가 남한 지역에 국한되어 있다고 간주하는 응답자들은 해외거주 동포를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모든 해외동포에 대해 이러한 경향이 일관되게 나타났고 특히 조선족, 러시아 고려인, 북한동포에 대한 시각차이는 분산분석 결과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도 북한 동포를 바라보는 시각차이가 다른 지역동포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대한민국을 남한지역만으로 인식하는 응답자와 한반도 혹은 한반도와 만주지역으로 인식하는 응답자 간 북한 주민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는 상대적으로 매우 크게 나타났다. 남북한간 통일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북한영토를 '회복해야 할 실지(失地)'로 간주하던 과거의 시각과 비교하면 남한만의 국가정체성을 강하게 느끼는 '새로운 집단'이 등장했다는 사실을 시사해 준다. 이러한 '새로운 집단'은 연령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1-8〉 연령별 영토인식

(단위: %)

	연 령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영토 인식	남한 지역	36.7	30.0	21.4	13.9	24.0
	한반도 지역	39.9	40.8	50.0	59.7	56.7
	한반도+만주	23.4	29.2	28.6	26.4	19.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chi^2 = 39.2$ df=8 p<0.01						

〈표 1-8〉에서 보듯이, 우리나라의 영토에 대한 인식은 연령별로 그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났다. 특히 20대, 30대 젊은 연령층과 그 이상 연령층 사이에 분명한 인식의 차이가 확인된다. 50대 이상 연령층에서는 남북한을 포함한 한반도지역 전체가 우리의 영토라고 하는 인식이 60%에 가까운 반면, 20대, 30대 층에서의 응답은 겨우 40%정도이다. 그 대신 젊은 연령층에서는 남한지역만이 우리의 영토라는 응답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영토에 대한 상이한 인식은 남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에도 차이가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볼 때 남북한이 서로 별개의 독립국가라는 응답이 높았다. 79.4%의 응답자들이 남북한을 별개의 국가로 간주했다. 그러나 〈표 1-9〉에서 보듯이 이처럼 높은 응답비율 가운데서도 영토인식에 따른 차이가 확인된다. 우리나라 영토를 남한만으로 규정하는 이들 중 남북한이 서로 별개의 독립국가라는 시각을 갖는 이들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영토의 범위를 확대해 갈수록 남북한이 별개의 국가가 아니라는 응답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이전에는 북한 땅을 회복해야 하는 '미수복 고토(故土)'로 간주하거나 혹은 남북통일을 민족결합을 위한 지상과제로 간주했다면,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 중 적지 않은 수가 북한을 상호분리된 별개의 정치체로 간주하고 있으며, 남한만의 대

〈표 1-9〉 영토인식과 남북한을 바라보는 시각

(단위: %, 괄호안 단위: 명)

남북한은 별개의 독립국가?	영토인식			평 균(N)
	남한지역	한반도 전 지역	한반도와 만주	
그렇다	85.1	79.7	73.3	79.4(796)
그렇지 않다	14.9	20.3	26.7	20.6(206)
	100.0	100.0	100.0	100.0(1,002)
$\chi^2 = 11.1$ df=2 p<0.01				

한국인을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이 잘 나타난다.

〈표 1-2〉, 〈표 1-3〉, 〈표 1-4〉에서 확인한 것처럼 민족정체성의 요건으로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 국적이 강조되는 가운데, 〈표 1-8〉,

〈표 1-9〉에서 보듯이 남한지역만을 국가영토로 인식하고 또 남한과 북한을 별개의 국가로 바라본다는 것은 이제 ‘남한만의 민족주의’ 혹은 ‘대한민국 민족주의’가 등장했다는 사실을 강하게 시사한다. 즉 이번 조사 결과는 한반도의 남쪽에 국한된 대한민국이라는 정치공동체의 소속감이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에 보다 중요한 요건으로 간주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표 1-6〉의 결과와 관련해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요인은 ‘모국어 사용’이라는 요인의 영향이다. 〈표 1-2〉에서도 진정한 한국인의 조건으로 한국어 사용이 중요하다는 응답비율이 높았다. 앤더슨(Anderson, 2002: 173)이 “언어를 국기, 의상, 민속무용과 같이 민족주의 상징(emblem)으로 취급하는 것은 언제나 잘못된 것이다. 언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로 특별한 결속감을 만들며 상상의 공동체를 창조해낼 수 있는 능력이다”고 주장한 대로, 언어는 민족을 구성하고 공동의 정체성을 갖게 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표 1-6〉에서 북한동포나 중국 조선족에 대한 수용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것은 러시아 고려인을

〈표 1-10〉 모국어 사용의 중요성과 해외거주 동포에 대한 친소감

모국어 사용	해외거주 동포에 대한 친소감 ¹⁾				
	미국동포	일본동포	조선족	러시아 고려인	북한동포
중요하다	2.98	3.01	3.02	2.90	3.11
중요하지 않다	2.84	2.87	2.90	2.82	3.01
t-test	t=1.68 p<0.1	t=1.76 p<0.1	t=1.53 p=0.14	t=0.87 p=0.38	t=1.24 p=0.22

주: 1) * 1-(완전히 남이다) ; 2-(남이다) ; 3-(대한민국 국민에 가깝다) ; 4-(대한민국 국민이다)의 응답의 평균값임.

비슷한 다른 해외동포들과는 달리 모두 동포사회에서 우리말을 사용해 왔고 따라서 우리와 언어가 소통되는 집단들이기 때문이다. 재미동포나 재일동포의 경우 이민 1세들과 2세들간 동질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것도 바로 이런 공통의 언어라는 요인과의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1-4〉에서 본 대로, 해외동포 2, 3세를 한민족으로 보느냐는 데 대해 단지 34.2%만이 그렇다고 대답했는데, 같은 질문에서 해외동포 1세에 대해서는 71.1%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일반적으로 해외동포 2, 3세는 언어소통이 잘 안 되는 집단으로 인식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해할 수 있는 응답이다. 〈표 1-10〉은 한민족의 정체성에 대한 모국어의 중요성과 각 해외동포별 심리적 거리감의 관계를 분석한 것이다. 그 결과가 흥미롭다. 미국동포와 일본동포에 대해서 정체감에 대한 인식과 모국어 사용에 대한 인식이 9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언급한 대로, 언어소통에 어려움이 없는 북한동포나 조선족과는 달리 미국, 일본거주 동포들에 대한 인식이 모국어 사용에 대한 인식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표 1-6〉에서 나타난 각국거주 동포에 대한 정체감의 차별적 인식

이 앤더슨이 말한 민족정체성 형성에서 동일한 언어 사용의 중요성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모국어 사용’이 중요하다고 한 이들 가운데서 북한동포의 대한민국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도 이런 인식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본 대로 혈통이나 출생요인보다, 대한민국이라는 정치적 공동체의 귀속감, 그리고 한국어라는 공통언어와 같은 근대적 민족형성의 가치가 한국인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그런 만큼 북한과 구분되는 별개의 단위로서 남한만의 정체성이 이전에 비해 강조되고 있다.

2) ‘외국계 한국인’에 대한 수용성과 개방성

지금까지의 논의는 한민족으로서의 동일한 혈통을 가졌지만 거주하는 곳이 외국이거나 외국에서 태어났거나 혹은 외국으로 국적을 옮기게 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즉 기본적으로 외모나 혈통상의 동질성을 전제로 한 정체성의 문제를 다룬 것이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외모나 혈통이 다른 외국출신을 한국인으로 받아들이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 그 특성을 찾아보고자 한다. 앞에서 본 <표 1-4>에서는 한국 국적 외국인이 한민족이라는 응답이 전체적으로 28.1%였다.

그런데 <표 1-11>에서 나타난 결과는 매우 흥미롭다. 부모 가운데 한 명만 한국인이더라도 한국국적을 가질 권리가 있다는 데 대해 동의한 비율은 72.8%에 달한다. 이에 명시적으로 반대한 의견은 10%를 겨우 넘은 수준이다. 국내에 거주하는 혼혈 한국인들이 과거 사회적으로 적지 않은 편견과 차별의 대상이 되었던 사실을 생각할 때 이 결과는 예상 밖으로 높은 수치이다. 이 조사가 행해지고 난 이후에 주목받은 연기자 다니엘 헤니나 미식축구 스타 하인스 워드에 대한 높은 사회적 관심이 그저 우연적이지 않은 아님을 <표 1-11>의 결과는 보여준다. 한편, 혈통이

<표 1-11> 다른 혈통의 한국인에 대한 수용성

(단위: %)

	그렇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다
한국국적이 아니어도 한국에서 태어나면 한국인이다	68.2	16.1	15.6
다른 나라에서 태어나도 부모 중 한 명만 한국국적이면 한국 국적을 가질 권리가 있다	72.8	16.2	11.0
재외동포가 아니라도 이주한 외국인들이 일정기간 거주하면 한국 국적 취득 자격이 있다	62.9	22.8	14.3

절반도 포함되지 않은 순수한 외국계혈통을 가진 이들에 대해서도 상당한 수준의 개방성을 보여준다. 한국국적이 아니어도 한국에서 태어나면 한국인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데 대한 응답이 68.2%에 달했다. 국적취득과 관련해 속인주의를 채택하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속주주의에 대한 높은 응답은 한국인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기존의 인식과 비교할 때 무척 흥미롭다. 이런 인식의 변화는 한국에 장기간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한국국적을 허용해도 좋다는 데 대한 높은 긍정의 응답에서도 다시 확인된다. 62.9%의 응답자들이 한국에 이주한 외국인들에게 한국국적을 부여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혈연중심의 단일민족’개념으로부터 상당한 정도 변화된 인식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다. 더욱 주목할 점은 <표 1-11>에서 나타난 응답패턴이 연령이나 성별 등 인구사회적인 집단에 따른 차이도 별로 없다는 점이다. 즉 한국인의 정체성을 순수한 혈연중심으로 규정하려는 인식으로부터의 변화는 사회내부 집단간 커다란 인식의 차이 없이 전반적으로 수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정체성의 개방화의 추세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일은 위험해 보인다. 과거에 비해서 외국계 한국인에 대한 인식상의 개방성이 확

〈표 1-12〉 외국인에 대한 태도

(단위: %)

	자녀가 외국인과 결혼해도 반대 않음			같은 외국인이라도 출신 나라에 따라 느낌 다름			외국 노동자 유입으로 우리나라 사람 일자리 위협		
	그렇다	그저 그렇다	아니다	그렇다	그저 그렇다	아니다	그렇다	그저 그렇다	아니다
20대	36.0	33.8	30.2	56.5	30.0	13.5	24.5	33.2	42.3
30대	35.2	29.2	35.6	65.2	21.6	13.2	35.6	31.2	33.2
40대	24.9	27.9	47.2	52.2	26.7	21.1	38.9	32.5	28.6
50대	27.3	22.4	50.3	55.6	27.5	16.9	49.7	28.7	21.7
60대+	27.0	18.4	54.6	57.1	23.3	19.6	59.2	17.8	23.1
평균	30.5	27.1	42.3	57.6	25.7	16.6	39.8	29.3	30.8
교차 분석	$\chi^2=37.9$ df=8 p<0.01			$\chi^2=14.6$ df=8 p<0.1			$\chi^2=60.7$ df=8 p<0.01		

대된 것은 분명한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조심스러움이나 소극성도 함께 확인되기 때문이다. 〈표 1-12〉는 이러한 상호모순적이거나 양면적일 수 있는 인식의 특성을 찾아보기 위한 것이다.

여기서 몇 가지 주목할 만한 특성을 확인할 수 있다. 외국계도 한국인으로 수용할 수 있다는 개방적 태도를 보인 앞에서 본 결과와는 달리 여기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 소극적, 폐쇄적 특성도 동시에 확인된다. 자녀가 외국인과 결혼해도 반대하지 않겠다는 견해는 전체적으로 30.5%에 불과했으며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42.3%로 보다 높았다. 이 질문에 대한 응답패턴은 연령별로 차이가 크게 나타났는데, 20~30대 연령층에서 긍정적 응답이 높았던 반면 40대 이상 연령층에서는 부정적 응답의 비율이 높았다. 20대에서는 찬성이 반대보다 높았고 30대는 두 응답의 비율이 서로 비슷했다. 40대 이상 연령층의 경우 자녀결혼의 문제가 '현실적 이슈'로 느껴질 수 있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나와 직접 관련 없는

〈표 1-13〉 외국인의 한국 국적 취득 쉽게 해야 하나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N
%	2.8	28.1	52.4	16.7	1001

경우'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너그러울 수 있지만 '나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소극적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한편, '같은 외국인이라도 출신국가에 따라 느낌 다르다'는 설문항에 대한 응답 역시 앞의 〈표 1-11〉과는 다소 다른 결과이다.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 한국국적을 주어야 한다는 응답이 높았지만 출신국가마다 느낌이 다르다고 하는 데 대해 57.6%가 그렇다고 응답했고 아니라는 응답의 비율은 단지 16.6%에 불과했다. 이 질문에 대한 응답은 다른 질문항목에 비해 연령별 차이도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 출신국가에 따라 외국인에 대한 우리 사회의 수용성·개방성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국적취득을 개방하더라도 아무에게나 허용할 수는 없다는 제한적·차별적 인식이 확인된다. 〈표 1-13〉의 결과 역시 이러한 인식을 뒷받침해준다. 외국인의 한국국적 취득을 쉽게 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69.1%의 응답자가 부정적 응답을 했다. 긍정적 응답이 20~30대 젊은층과 전문대 이상 고학력층에 다소 높게 나타나기는 했지만 전반적으로 한국국적 취득을 쉽게 하는 데 대한 거부감은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응답과 출신국가마다 느낌이 다르다는 응답의 패턴을 함께 고려할 때, 〈표 1-11〉에서 나타난 한국거주 외국인에 대한 국적허용에 대한 개방적 태도가 현재 우리사회에 증가하는 동남아 출신 외국인을 적극적으로 포용하려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와는 달리 오히려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에 대해 불안한 시선을 보내는 모습도 나타났다. 〈표 1-12〉에서 보듯이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이 국내 일자리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는 이들의 비율이 39.8%로 제법 높게

나타났다. 이에 대해서는 연령별로 시각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났는데 60대 이상 연령층에서 매우 높은 불안감이 확인되었고, 50대 연령층에서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들 집단에서 나타난 불안감은 20대 연령집단의 두 배 이상에 해당되는데, 흥미로운 점은 실제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 젊은 세대보다 나이든 세대에서 불안감이 더욱 크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외국인 노동자의 다수가 현재 우리나라 노동력이 기피하는 산업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젊은층에서는 그들을 노동시장의 경쟁자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50~60대 연령집단에서 나타난 응답의 패턴을 고려할 때, 상당한 수준의 막연한 심리적 거부감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로 지칭되는 이들의 다수가 동남아인들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앞에서 논의한 대로 '출신국가에 따라 느낌이 다르다'는 데 대한 응답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를 정리하면, 한국인이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하는데 있어서 혈연적 동질성에 대한 엄격성은 다소 완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외국혈통을 가진 한국인에 대한 거부감이 줄어들었고 혼혈인에 대한 편견도 많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제한적이며 지나치게 확대해석하는 일은 피해야 할 것 같다. 외국인을 우리사회에 받아들이는 데 대한 '조심, 주저, 소극, 불안'의 태도도 동시에 나타나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인의 정체성을 규정해온 혈연적 동질성의 완화가 보편적 개방성으로 이어진 것은 아니며 인종적 편견이나 문화적 유사성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난다는 사실도 지적할 점이다. 이처럼 '외국계 한국인'의 문제는 규범적 차원에서는 관대하고 개방적 모습을 보이면서도 현실과 부딪히는 상황에서는 엄격하고 배타적인 정체성으로 회귀하려는 이중적 모습을 보인다.

4. 결론

이 장의 관심은 한국인을 규정하던 정체성에 어떤 변화가 생겨나는지 살펴보려는 것이었다. 앞에서의 논의 결과 몇 가지 흥미로운 특성이 확인되었다. 가장 주목할 점은 한국인이 갖는 정체성이 전통적 가치, 즉 혈연공동체나 지연중심의 특성보다 이제는 대한민국이라는 정치공동체의 소속감, 즉 정치적 정체성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대한민국이라는 정치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느냐의 여부가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데 매우 의미 있는 것이 되었다. 국적포기자에 대한 강한 거부감이나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에 대한 개방적 태도 역시 이런 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더욱이 북한과의 관계에서도 남북한을 상호 별개의 독립국가로 바라보는 시각이 일반적이었고 이는 영토에 대한 인식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즉 북한과 구분되는 별개의 정치적 단위로서 대한민국을 바라보고 대한민국이라는 정치적 공동체의 소속감 속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찾는 것이다.

또한 앤더슨이 말한 대로 정체성의 인식에 있어서 공용언어의 중요성 역시 확인되었다. 이런 특성은 특히 해외동포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잘 나타난다. 북한동포와 조선족에 대한 상대적 개방성과 해외동포 2, 3세나 러시아 고려인에 대한 거리감은 바로 이와 같은 정체성을 규정하는데 언어의 동질성이 갖는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와 같이 정치적 소속감, 언어의 공유라는 요인에서 본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한국인'은 한민족이라는 혈연적 특성에 의한 관계보다 근대적 의미의 민족주의가 남한이라는 지역에 국한되어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이라는 정치적 공동체의 소속감에 대한 강조는 혈연적 동질성을 전제로 한 차별적 정체성이라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즉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체성은 여전히 혈연적 요인을 중시하고 있다. 이러한 특성은 '외국계 한국인'을 바라보는 시각 속에서 확인되고

있다. 규범적 수준에서 외국계 한국인에 대해 개방적이고 수용적인 모습을 보이지만 실제생활 속에서는 여전히 폐쇄적이고 협소하게 한국인을 규정하려는 모습도 나타난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이 시점에서 한국인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방식은 혈연을 중시하는 전통적 인식과 정치적 정체성 등이 강조되는 근대적인 민족주의적 특성이 공존하는 특성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혈연적, 문화적 정체성을 강조하면서도 동시에 남한만의 정치적 정체성이 한국인을 정의하는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즉 혈연에 기초한 막연하고 애매한 한민족, 한국인이라는 자기정의로부터, 이제는 보다 구체적이면서도 근대적 속성을 함께 내포한 '대한민국 민족주의'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제 2 장

집단정체성, 사회균열, 그리고 정치균열

김민전

1. 들어가는 말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최근 들어 한국사회가 자주 던지는 담론이다. 광복 이후 60여 년 간 숨가쁘게 달려왔고 그 결과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의 하나에서 세계 10위권의 경제규모를 가지게 되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지금쯤 우리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또한, 한반도는 이데올로기 전쟁의 참화를 겪었던 전 세계에 몇 안 되는 곳이었다는 점을 감안해도 탈냉전과 함께 한번쯤 우리를 가다듬어 볼 필요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의 정체성 담론은 차분하게 우리사회를 반추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어느 쪽인가?’라는 편가르기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무언중에 어느 쪽이든 정체성의 선택을 강요받고, 또 그것을 밝히도록 강요받는 것이다. 즉, 정체성의 정치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우리사회는 남남갈등이라는 말이 보여주듯이 사회 각 집단